

AI로 만난 정약용…민주주의·시민 역할 탐구 ‘열기’

전남 수업 대전환 ‘2030교실’

(4)보성예당고 ‘2030 AI 아고라 교실’

‘지방자치제도’ 주제 열띤 토론

한울고·녹동고 학생들도 참여

교육·산업·복지 등 조례안 구성

김대중 교육감 현장서 의견 개진

인공지능(AI) 기술로 되살아난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과 보성예당고등학교 학생들이 최근 ‘2030 AI 아고라 교실’에서 마주 앉았다.

5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예당고 1학년 18명과 한울고·녹동고 학생들이 AI를 활용해 ‘다산 정약용의 사상으로 알아보는 지방자치제도’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해당 수업은 다산 정약용의 사상을 오늘날의 지방자치제도와 연결해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미와 시민의 역할을 탐구하도록 설계된 통합사회·정치와 법 응집 프로젝트 수업이다.



보성예당고 학생들이 ‘2030 AI 아고라 교실’에서 ‘다산 정약용의 사상으로 알아보는 지방자치제도’를 주제로 진행된 수업에서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학생들은 AI 기술로 구현된 가상의 정약용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AI 정약용’은 그의 대표 저서인 ‘독민심서’와 ‘경세유표’의 사상을 토대로 지방자치의 원리와

시민의 덕목을 설명했다.

이후 학생들은 “지금의 행정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시민에게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와 같은 질문을 던졌고, 관련 자료를 검색해 근거를 찾아가며 AI의 답변을 실시간으로 겸증

했다.

김하린 학생은 “복민심서에 공정하게 행정을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종종 자신과 지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지역 이기주의가 문제 가 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

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AI 정약용은 “균형잡힌 행정으로 공평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소외된 이웃의 목소리를 듣고 끊임없이 공정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사고하고 토론을 통해 민주주의의 의미를 확장해 나갔다. 이어 모둠별로 각각 작성한 교육·산업·복지·문화관광 분야 조례안을 완성했다.

리더교사를 맡고 있는 이동민 교감은 “‘2030 AI 아고라 교실’은 고대 그리스의 열린 토론장처럼 자유로운 학습 공간을 구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 공간을 통해 학생들이 친밀하게 토론하고 탐구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업에는 김대중 교육감이 교육행정 전문가로서 참여해 학생들이 제안한 조례안을 함께 살펴보고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생활 속 문제의식을 반영한 조례안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현장의 작은 생각이 지역사회 변화를 이끄는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격려했다.

/박선옥 기자

광주유아교육진흥원 ‘유아·놀이 중심 콘텐츠’ 배포

협동·예절·배려·책임 등 주제 12편
3-4세용·4-5세용 수준별 자체 제작

광주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이 유치원·어린이집의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자체 개발한 ‘2025년 유아·놀이 중심 교육 콘텐츠’를 배포했다.

5일 광주유아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콘텐츠는 유아가 필수 덕목인 인성 가치를 함양하고, 유치원과 가정의 교육 연계를 강화해 유아

들의 전인적 성장을 돋기 위해 제작됐다.

콘텐츠는 협동·예절·배려·책임 등 4개 주제의 영상 12편으로 구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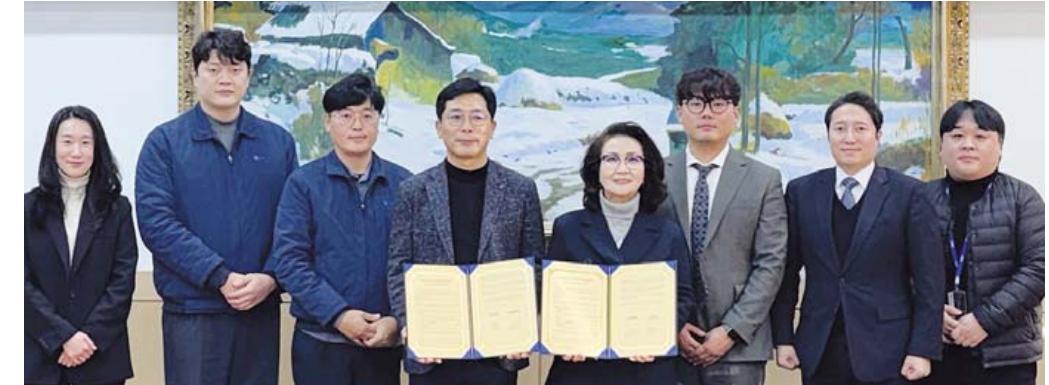
특히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춰 3-4세용과 4-5세용으로 수준별 제작됐으며, 가정에서도 학습이 이어지도록 활동지를 포함한 가정통신문을 페기지로 제공해 활용도를 높였다.

해당 자료는 자체 앱인 ‘신나는 누리놀이’ 또는 안내 포스터의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김경애 원장은 “이번에 개발된 인성 콘텐츠가 유아들의 아름다운 마음 가꾸기와 교원들의 수업 내실화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발맞춰 유보통합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유아기 맞춤형 디지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유아교육진흥원은 2020년부터 현재 까지 신체운동, 생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86 편의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보급해 오고 있다.

/박선옥 기자



동강대 RISE사업단-GGM, 인재 육성 ‘맞손’

지속가능 산·학 네트워크 구축

동강대가 지역과 대학,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산·학 네트워크를 구축해 광주 자동차 산업을 이끌 혁신적인 인재 육성에 나선다.

동강대학교 RISE사업단은 “최근 본관 1층 장원홀에서 국내 제1호 상생형 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와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사진>

동강대는 광주 완성차 산업을 대표하는 GGM과 함께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등 성공적인 RISE 사업으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에 앞장선다.

앞서 2022년 4월 이민숙 총장과 전기 미래자

동차과를 비롯해 총학생회 학생들이 GGM을 방문해 스마트팩토리 생산라인과 ‘캐스퍼 1호’를 살펴보며 미래 AI 기술력을 갖춘 인재의 꿈을 키웠다.

당시 동강대 방문이 2019년 12월 출범한 GGM의 첫 외부 견학 행사였다.

김민종 GGM 본부장은 “동강대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함께 키우고 RISE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산업과 교육이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숙 총장은 “GGM과 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현장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선옥 기자

광주대 정시 경쟁률 2.92대1…7년만 최고

간호학과 10.43대1 기록

광주대가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최근 7년 새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5일 광주대학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284명 모집에 829명이 지원해 경쟁률 2.92대1을 기록했다.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기균 일반전형 간호학과로 10.43대1이었다. 기균 일반전

형에서는 ▲보건복지대학 411대1 ▲인문사회 과학대학 369대1 ▲작업치료학과 306대1 ▲보건행정학과 300대1 등 고른 경쟁률이 나타났고, 다군 일반전형에서는 ▲공과대학 426대1 ▲건축학과 323대1 등의 경쟁률을 보였다.

광주대는 앞서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도 1천288명 모집에 정원 내 1천97명, 정원 외 71명, 합계 1천108(86%) 명이 등록해 5년 만에 가장 높은 등록률을 기록한 바 있다.

김은실 입학처장은 “젊은대학, 젊은총장’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김동진 총장이 직접 별로 뛰면서 학교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 상승 효과를 봤고 입학처와 학교 구성원이 하나가 돼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입시홍보를 펼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이어 “홍보영상 등 온라인 홍보 강화와 통합 모집이라는 입시전형도 선전의 원동력으로 꼽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시 등록기간은 오는 2월3~5일이며, 정시 추가모집 기간은 2월20~27일이다.

/박선옥 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증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588

그린
알로에